
전체 주제:
아브라함, 이삭, 야곱의 하나님

메시지 7

아브라함의 하나님

(6)

하나님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체험함

성경: 창22:1-18, 히11:17-19, 롬4:17

I.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,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—창 21:22-33.

- A. 에셀 나무는 체험되고 표현된 생명 나무를 상징한다—33절.
1. 브엘세바에 있는 맹세의 우물 곁에 심겨진 에셀 나무는 생명의 풍성한 흐름, 즉 생명 나무를 체험한 결과를 묘사한다.
 2. 브엘세바에서 그 우물물을 마시고 그 물에 의해 살 때 우리는 생명의 풍성이 흐르는 에셀 나무와 같을 것이다.
- B. 성경에서는 에셀 나무를 심는 것과 “영원한 하나님, 여호와의 이름”을 부르는 것이 연결된다—33절.
1. 영원한 하나님은 은밀하고 비밀한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.
 2. 아브라함은 여호와, 엘 오람을 부르고, 영원하시며 감추이신 하나님을 그의 생명으로 체험함으로 살았다.

II. 브엘세바에서의 생활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(이삭)를 산출한다—22:1-2.

- A. 이삭의 생활의 근원은 그를 번제, 즉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드려진 사람이 되게 했다—2절, 7-9절.
- B. 합당한 교회 생활은 번제들을 산출한다—레1:1-2, 롬12:1-2.
1. 브엘세바에서 살고 자라며 여호와의 이름, 엘 오람을 부른 것은 모두 번제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—창21:33, 22:1-2.
 2.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더 머물수록 우리는 더욱 브엘세바에서 모리아로 인도될 것이다.

III.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—롬 11:36.

- A. 하나님의 최고의 요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.
- B.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역사해 넣으신 것을 포함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반드시 그분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.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붙잡지 않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.
- C. 이삭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그분께 되돌려 드릴 것을 요구하셨다—창22:1-2.

IV.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다—히11:17-19.

- A.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관념에 따라 시작하거나 행하지 않았다.

- B. 아브라함 안으로 주입된 믿음은 그를 또 다른 이름이 시온산인 모리아 산으로 이끌었고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했다—창22:1-2, 대하3:1.
- C. 아브라함은 시온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연결 될 것이다—계14:1.

V. 이삭이 드러진 후 그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부활 안에서 되돌려졌다—창22:16-18, 히11:17-19, 롬4:17.

- A. 이삭을 되돌려 받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, 즉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고 체험했다—히11:17-19, 롬4:17, 고후1:9.
- B. 이삭이 부활 안에서 되돌아 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천연적인 이삭이 아니라 부활한 이삭이었다.
- C. 이삭은 드러지고 난 후에 부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되돌아 왔고 축복이 되었다—창22:16-18.
- D. 우리의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부활의 하나님께 길을 드리기를 위해 반드시 죽음이라는 최고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—요11:25, 고후1:9.
- E.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분께 되돌려 드린 후에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되돌려주실 것이다—히11:17-19.
 - 1.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, 영적인 축복, 일, 성공들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며 결국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되돌려질 것이다.
 - 2.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분께 드리고 그것이 죽음을 통과한다면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되돌려주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축복이 될 것이다—창22:16-18.
 - 3.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부활 안에서 온다.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활 안에서 이삭을 되돌려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될 것이다.

VI.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림으로 이삭은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변성했다—16-18 절, 롬8:29, 계21:2, 7.

- A.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씨의 궁극적인 완결(모래와 별들)이 될 것이다—창22:16-18, 롬8:29, 계21:2, 7.
 - 1. 새 예루살렘에서 열두 지파로 묘사된 이들은 모래들이고 열두 사도들로 묘사된 이들은 별들이다—12, 14절.
 - 2. 모래와 별들로 상징된 두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함께 건축될 것이다.
- B.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증가하는 길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볼 수 있다.
 - 1. 하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활 안에서 되돌려 받았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별들과 모래가 되었다.
 - 2. 우리의 한 알의 밀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그 밀알을 죽음에 넣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그것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되돌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증가를 볼 것이다—요12:24.